

# 담양군,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

### (주)삼안·대림건설(주)·이엠티씨(주)와 MOU 체결 2023년까지 약 427억 투자...군에 기부채납 방식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하는 친환경 시공법 도입

담양군은 22일 (주)삼안, 대림건설(주), 이엠티씨(주) 등 3개 기업과 함께 '담양호관광지(추월산지구)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최동식 (주)삼안 대표이사, 조동윤 대림건설(주) 토목사업본부장, 서광모 이엠티씨(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 11여 명이 참석했다. (주)삼안, 대림건설(주), 이엠티씨(주)는 2023년까지 담양군 용면 월계리

담양호관광지 추월산 일원에 약 427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1.48km), 모노레일(0.52km)을 설치해,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물과 토지 등을 군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권만 갖는 사업방식이다. 특히, 추월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시공법을 도입해 개발할 계획이며, 전국 어디서나 비스듬한 승강장과는 달리 독특하고 차별화된 금성산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추월산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 동안 추월산은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으로 교통약자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산악과 호반을 연계한 교통약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관광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분야에 민간유치가 더욱 더 확대됨은 물론 연간 49만 명의 관광객 효과, 546명의 고용창출 효과, 1,05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우수기관' 선정

### '환경 기초시설 설치 분야' 성과 목표 달성도 우수 등 인정



화순군이 2020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평가 결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에 선정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민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오염 총량 관리 사업 4개 분야로 나눠 계획수립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사업관리 실행 등 3개 항목 9개 지표로 평가했다. 화순군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 분야

에서 예산편성과 사업 내용 적정성 등 성과 목표 달성도가 우수하고 노후 설비 개선을 통한 방류수 수질 개선과 하수도 설치 사업의 우수성이 인정받아 1위를 차지했다.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부 주관 공공 하수도 실행 점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성과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 개선, 군민 보건 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 도시재생 골목길 지킴이 '환경 치유사' 성공적 마무리

구례군은 구례읍 봉동리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환경치유사를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월 8회씩 총 48회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란 지역자원과 문화를 발굴하고 관리 운영하는 주민 활동가다. 이 중 환경치유사는 도시재생의 목표 중 하나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주민 18명으로 구성되어 1일 3시간씩 아침 7시부터 골목길 꽃꾸미기, 쓰레기와 잡초 제거 등 활동을 주로 한다. 이들은 봉동리 일대 골목길과 거점 시설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화분을 배치하였다. 화분을 배치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엔 가장자리 바닥에 구멍을 뚫고 꽃을 심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 백화등, 능소화 등 덩굴성 야생화와 코레우스, 천일홍의 꽃과 청보리, 국화, 토종 갖 등 계절에 맞게 릴레이식으로 갈아 심었다. 2019년 선정된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2022년까지 통합어울림센터 건립, 세포마켓 및 복합주차장 조성, 도시재생대학운영, 주민공모사업,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경 치유사 활동으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에도 환경 치유사 활동 외에도 마을해설사 등 마을활동가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나주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지정...일-가정 양립 선도

나주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리자의 관심 및 의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경영 직원 만족도', '직원 인터뷰' 등 심사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

장 평가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신규 지정 이후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오는 2022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됐다. 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도입과 유연근무 시스템, 가족 휴양시설,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또 가족돌봄휴가, 유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신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새내기 공무원 임용 시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생활과 편안한 가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지정의 성과를 거뒀다"며 "관내 기관·기업들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와 컨설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정민기자

## 도로 정비 으뜸 곡성군, 전남도 최우수 기관

곡성군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위임 국도를 포함해 지방도와 군도까지 총 16개 노선 203km 구간에 대해 노후 포장 덧씌우기, 차선 도색, 안전시설 정비, 교량보수 및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노면정소차량'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지난 8월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좋은 평가를 받은만큼 겨울철 제설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앞으로도 사고 예방과 최적의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곡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드리는 연말선물

# “사진엽서집 나눔 이벤트”

올해 코로나19로 곡성을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고자 곡성 사진엽서집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소진시까지

**배송** 무료배송

**발송일** 12월말 일괄 배송

**참여 방법** 곡성군 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에서 신청 접수중!  
[http://blog.naver.com/gokseong\\_love](http://blog.naver.com/gokseong_love)

**문의전화** 061) 360 - 8225 곡성군 스마트홍보팀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해 주세요 (패키지 당 10장)

**풍경편**  
곡성 풍경사진 10장 묶음

**장미편**  
여쁜 장미사진 10장 묶음